

남원 지역 현안 해결 '최선'

최경식 시장, 국회서 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제2중앙경찰학교 대상지 선정 협력 건의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2025년 국가 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 및 제2중앙경찰학교 대상지 선정 협력 건의를 위해 27일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남원시 중점 확보대상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주 내용은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190억원) △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 등으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의 내년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단계 중점 확보를 건의했다.

이어 남원시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가칭) 설립 대상부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정동영 의원, 안호영 의원, 한병도 의원 등 도내 지역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을 만나 남원시의 입지적 강점을 설명하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공모 대응으로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함께 국회를 방문해 힘을 보탤다.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2025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 및 제2중앙경찰학교 대상지 선정 협력 건의를 위해 27일 국회를 방문했다.

현재 남원시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상시 소통체계와 긴밀한 협력으로 내년도 남원시와 관련된 국가예산 반영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9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됨에 따

라 사업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수시로 만나 민선8기 핵심공약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전북자치도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경찰수련원 유치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캠벨포도, 베트남 하노이 수출

원마트입점... 농가 소득증대기여

남원시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캠벨포도가 태풍, 폭염 및 진드기 등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27일 베트남 하노이로 수출하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지리산농협,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인 포도(캠벨, 사인머스켓)

유통·판매망 다양화를 위해 베트남 바이어와 수출 협상을 진행했으며, 추석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 원마트에 입점해 판매할 예정이다.

수출은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하고, 산지유통센터에서 3.3톤(1.488박스/1.5kg, 3kg)을 공동 선별한 것으로, 이번 수출을 계기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홍콩으로 사인머스켓도 본격 수출할 계획이며, 27일

열린 수출 선적식에는 시 원예산산업과장, 도청 수출팀장, 전북농협 본부장, 농협 남원시지부장, 지리산농협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지리산포도공선 회장, 베트남 수출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산물 수출 확대를 기원했다.

남원시에서는 올해 700여농가에서 포도 373ha를 재배해 6,000여톤이 생산될 예정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최신식 포도선별기를 도입해 대량 공동 선별 체계를 확보하고 국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홍콩으로도 수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치매안심센터-공설시장 상인회, 치매 안심시장 협약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와 공설시장 상인회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매 안심시장 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번 치매안심시장은 대형마트 등 낮은 시설을 꺼려하는 치매환자가 친숙한 전통시장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환경 마련책으로 시 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설시장 상인회 회원들은

치매환자 대응법을 교육받고 배회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임시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등 치매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치매 안심시장에서는 치매환자와 '치매파트너 플러스 봉사단'이 함께 장보기 훈련도 하게 되며, 시장 안 쉼터 휴게실을 옛 추억 회상 공간으로 꾸며 치매환자의 기억 회상을 돕는 사업도 하게 된다.

한용재 치매안심센터장은 "공설시장



상인회와 함께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제2회 추경안 편성

5633억원 규모 군의회 제출... 군민 생활·민생 안정 등 중점

임실군(군수 심민(사천))이 군민 생활, 민생안정과 천만관광 임실시대 생활인구 증대 등에 방점을 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웠다.

군은 국제 감소 등에 따른 재정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증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을 반영한 5,633억원 규모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352억원 증액된 규모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및 농축산 농가 등에 시급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60억원 △정주활력복합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문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천만관광 임실시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제2기 섬진강 예곡뮤지엄 조성사업 6억원 △장미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2억원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55억원 △원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 20억원 △인산지구 및 오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3억원도 담겼다. 아울러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화영농시설 구축사업 20억원 △홍고추 출하수매 장려금 3억원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1억원 △가축방역약품 1억원 △농특산물 택배비 1억원 등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심민 군수는 "이번 추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생활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군민과 함께 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1일 최종 확정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하반기 신청 접수

순창군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인 '대학생 생활지원금'의 하반기 문을 활짝 연다.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순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대표적 교육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관내 초·중·고 졸업 시 대학생 본인인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학기당 최대 200만원 4년간 최대 1600만원을 지급하고, 관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 시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학기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하반기 1차 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추가 신청은 9월 9일부터 20일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인 '대학생 생활지원금'의 하반기 문을 활짝 연다.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순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대표적 교육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관내 초·중·고 졸업 시 대학생 본인인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학기당 최대 200만원 4년간 최대 1600만원을 지급하고, 관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 시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학기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하반기 1차 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추가 신청은 9월 9일부터 20일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관광업계 대상 팸투어 성료

순창군이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관광상품과 농장 체험상품을 선보이는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울·충청·전라·경상권의 전 세비스와 여행사 임원진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간 순창군은 이들에게 주요 관광 명소와 체험 장소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지역의 매력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강천산 군립공원, 체계산 출렁다리, 발효테마파크 등 순창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순창볼고기와 다양한 농장 체험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강천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강천 힐링스파는 방문객들에게 피로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주목받았다.

뿐만 아니라, 체계산 출렁다리는 웅장한 경치와 스릴을 동시에 제공하는 명소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논의

남원시는 지난 23일,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6개소 대표자들과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막바지 여름철 무더위 안전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세수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예산 감액이 따른 수백에 없는 자치단체 상황을 공유하며 2025년 노인 일자리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남원시는 올해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 읍면동 및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남원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남원사랑나눔센터) 등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시설도무미 사업 등 54개 사업단에 4,835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독립운동가 삼척당 김영원 선생 추모식 개최

삼척당 김영원 선생 추모회(회장 김창식)가 지난 26일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삼요정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헌신하신 삼척당 김영원 선생의 순국 105주기를 기리기 위해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설삼희 임실 부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유가족,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임실지역의 동학혁명과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옥중 순국하신



삼척당 김영원 선생의 순국 105주년을 맞이하여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시키고자 행해졌으며, 김영원 선생의 약사 보고와 추도사, 천도교식의 추모제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